

문정희 '시의 꽃다발' 모스크바 물들인다



문정희 시인

두 사람이 같이 산다는 것은 기적이다
 날마다 기적을 만들려고 했던 그녀는
 마녀처럼 치마를 펼쳐서 식식거리는 불씨
 를 덮었다
 곁에서 우는 아이들의 손목을 힘주어 잡
 았다
 여기서 살기로 했다
 이 무모하고 황홀한 진흙탕을 두고
 어디로도 떠나고 싶지 않았다
 ('여시인' 중에서)



문정희 시인의 시집 '지금 장미를 따라'와 러시아어 번역본 '바람의 눈을 따라'



“러시아는 문학 저변이 넓고 탄탄해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모스크바에서 제 작품이 낭송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보성 출신 문정희 시인(69)의 시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울려 퍼진다.

27일 한국문학번역원에 따르면 문정희 시인은 내달 8일 저녁(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 외국문학도서관에서 열리는 ‘한국시인과의 만남’ 행사에 참석한다. 최근 전화 통화에서 시인은 “러시아에서 번역 출판된 시집 ‘바람의 눈을 따라’는 ‘르노미노’라는 출판사가 기획한 ‘세계 시인선’ 시리즈 일환으로 출간됐다”며 “푸시킨이나 보를레트 같은 세계적인 시인들 시리즈에 한국 시인으로 처음으로 선택된 데 대해 기쁘고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러시아에서 열리는 ‘한국시인과의 만남’은 번역원이 한·러 문화 교류와 한국 문학 알리기를 위해 2010년대 이후 거의 매년 개최해 온 행사의 연장선이다. 지난해에는 작가 김연수, 김애란과 이들의 작품(러시아에서 출간된 소설)이 소개됐으며 올해에는 한국 시를 알리는 자리가 마련됐다. 문 시인 외에도 이근배·최동호 시인도 참석해 시 낭송을 하고 독자들 만난다.

광주 출신 한강 작가의 맨부커상 수상

에 이어 보성 출신의 문 시인 시가 러시아에 소개되는 것은 한국문학 세계화가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남도 출신 문인들이 한국문학 세계화를 견인하는 것으로, 남도의 문학 자산이 그만큼 풍성하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이번에 낭송할 작품은 시집 ‘지금 장미를 따라’(민음사)에 수록된 시들이에요. 47년의 창작활동 기간 13권의 작품집에서 가려 뽑은 시선집인데 작년 가을 러시아에서 ‘바람의 눈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번역 출간됐습니다.” 문 시인은 이어 “번역은 모스크바 문화대학 한국어과 에 카테리나 노수가 맡았고 현지에서 호응을 얻었다”고 말했다.

시인 문정희. 그녀의 시력(詩麗)을 두고 어떤 이는 ‘한국 여성시의 역사이자 한국시의 역사’라고 말한다. 그만큼 시의 스펙트럼이 넓고 시인으로서 접하는 위치가 상징적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문 시인의 작품에 일관되게 흐르는 가치는 여성주의와 생명주의이다. 50년 가까운 창작 기간 동안 전쟁과 가난, 80년 광주, 여성의 ‘삶’ 등이 자리한다. 문 시인은 ‘여성’과 ‘생명’의 토대 위에서 실존적 자각과 독창적 표현으로 아름다운 시의 꽃다발을 묶어냈다.

그녀는 “나의 고향인 광주에서 일어난

대규모의 민주화 운동에서 시민과 학생들이 피 흘리며 죽어간 것을 보며 나는 국가와 인간에 대한 본질적인 회의와, 언어의 무력함과 문학에 대한 좌절을 뼈저리게 느꼈다”며 “이 같은 환경은 인간의 자유와 생명의 문제에 깊이 눈뜨게 한 좋은 재료가 되었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문 시인의 시는 19개국에 걸쳐 11개의 언어로 번역됐다. 영어, 불어, 중국어 등 다양한 언어로 번역돼 세계 독자들로부터 공감을 얻고 있다. 시인은 지난 2010년 노벨문학상(1974) 수상자 하리 마르틴손의 생명 사상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시카다(cikada)’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현지 문학 독자들을 만나 ‘오직 나의 슬픔, 나의 보석’이었던 시들을 들려줌으로써 한국 문학과 시를 널리 알릴 예정입니다. 시는 사람의 몸처럼 아름다움과 슬픔과 욕망을 지닌 한 송이 꽃이요, 길이나 까요.”

한편 시인은 1969년 월간문학 신인상으로 등단해 지금까지 ‘오라, 거짓 사랑아’, ‘나는 문이다’ 등 다수의 시집을 펴냈으며 목월문학상, 정지용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제40대 한국시인협회 회장과 고려대 문장과 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 동국대 문예창작과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한국문학번역원 교류 행사 한국 문학 알리기 시 낭송 러시아 번역 시집 작년 출간

보성 출신...47년 창작 활동 한강 맨부커상 수상 시어 남도문학 또 하나의 결실

광주일보 신춘문예 출신 박이수 소설집 '부표의 전설' 펴내



희망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아웃사이더들의 고통과 통증

‘작가는 고통과 상처를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는 고전적 정의를 떠올리게 하는 소설집이 출간됐다.

광주일보 신춘문예(2014년) 출신 박이수 작가 소설집 ‘부표의 전설’(문학들이 그렇다. 그녀의 소설은 온통 통증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다. 아픈 생의 그림자를 붙잡고 희망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아웃사이더들의 무참한 모습이 그려져 있다.

소설가 이기호는 박 작가를 가리켜 ‘박이수는 ‘고통’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다가 결국 작가가 된 사람’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고통을 이해한다는 것은 ‘고통

의 플랫폼’을 이해한다는 것이며 시간을 이해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표제작 ‘부표의 전설’은 섬에서 늙어 죽어가는 자신과 조우하게 되는 한 여성의 이야기이다. 마지막 작품 ‘황새들이 켜질 때 길 건너는 밥’은 미혼모의 배속에서 태어나지 못한 아이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했다. 이 두 작품 사이에는 비참한 방식으로 살아가거나 죽어가는 노년, 청년, 청년들의 이야기가 배치돼 있다.

소재와 작중 인물들이 각각의 독립적인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작품에는 일정한 규칙성이 있다. 아마도 그것은 운명일지 모른다. 무엇보다 소설은 한 생의 기록

이라는 형식을 띠면서도 역순으로 구성된 탓에 플래시백 효과를 준다. 독자들은 소설들을 역순으로 읽었을 때 하나의 질문과 맞닥뜨리게 된다. ‘과연 이 아이는 이런 세상에서 태어나도 괜찮은 걸까?’

김형중 평론가는 “이대로라면 아마도 한국 소설 속에서 인간 세계는 동물의 왕국으로 그려지고, 운명론은 세계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방식이 될 것이다”고 평한다.

한편 박 작가는 나주 출신으로 광주대 문예창작과를 졸업했으며 동 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기다림 - 충효동 왕버들나무 I'

'樹(수)-기다림'... 오창록 작가 개인전

7월 6일까지 DS갤러리

나무에 숨어 있는 따뜻한 심성을 화폭으로 옮기는 오창록 작가가 30일부터 7월 6일까지 DS갤러리에서 ‘樹(수)-기다림’을 주제로 개인전을 연다.

그동안 신앙을 캔버스에 녹여냈던 오창록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는 소나무 등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를 소재로 한 국경 서정을 그린 작품을 선보인다.

오창록 작가는 전곡을 따돌려 나무를 그렸다. 작품 ‘기다림 - 변산에서 I’은 전북 변산에서 만난 소나무가 소재다. 또 ‘기다림 - 서창의 여름’에서는 광주 서창 지역에 나란히 서 있는 소나무 네 그루가

등장한다. 소나무 위쪽 잎은 짙푸르게, 아래쪽은 초록색으로 표현하고 곳곳에 붉은 꽃을 그려 넣어 시원함과 여유를 주는 작품이다. 이밖에도 목직함 왕버들 기개가 느껴지는 ‘기다림 - 충효동 왕버들 나무 I’와 담양 정자문화를 녹여 낸 ‘정자에서 길을 묻다II’ 작품을 출품한다.

호남대 미술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한 오창록은 한국 미술대전 특선, 목우회 미술대전 우수상, 광주시미술대전 최우수상 등을 수상했다. 한국가톨릭미술가협회 부회장, 광주가톨릭미술가회 회장으로 활동 중이며 오창록조형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문의 062-236-2520.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씨늘한 공포영화로 무더위 날리세요

광주극장 '시네바캉스 : 간담씨늘 Day'

한여름 무더위를 식히는 영화를 만나다.

광주극장은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 '시네바캉스 : 간담씨늘 Day'를 매주 토요일 진행한다.

2일(오후 7시30분) 상영작은 덴 길로이 감독의 스릴러 '나이트 크롤러'이다. 시청률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저지르는 언론과, 돈과 성공을 위해 점점 괴물이 되어 가는 한 인간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어 9일에는 여성 A.I.를 둘러싼 두 남자의 관계를 그린 알렉스 가랜드 감독 '엑스 마키나'가 상영되며 412m 높이의 건물 위를 가로지르는 한 남자의 이야기로 그린 조셉 고든 레빗 주연의 '하늘을 걷는 남자'(16일), 강력한 비주얼과 외계인으로 변한 스칼렛 요한슨이 인상적인 '언더 더 스킨'(23일), 몽환적 스타일의 호러 '팔로우'(30일)가 상영된다.



'나이트 크롤러'

16일과 23일 영화 상영 후에는 유맹철 광주시네마테크 사무국장과 이용철 평론가의 토크도 마련된다. 티켓 가격 6000원(CMS 후원회원 4000원). 문의 062-224-585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명물 박물관 탄생!!
 세계 70여개국에서 수집한 조각·장식 6,000여점 전시

세계 조각·장식 박물관
 World Sculpture·Ornament Museum

☎(062) 222-0072, 226-5800 일요일 휴관
 (구. 카톨릭센터 뒤 금남문선 1층)

아프리카 소나조각 앙코르 전시회
 * 400여점 전시

KAC 한국공항공사

국토교통부 **정부 3.0**

대한민국을 띄우다

한국공항공사가 띄우는 것은 국민의 안전과 행복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공항운영 전문 공기업인 한국공항공사는 전국 14개 공항의 안전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여 국민의 행복한 하늘길을 열어 갑니다.

●국민안전 ●국민행복 ●국민감동 서비스

KAC 한국공항공사
 KOREA AIRPORTS CORPORATION